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참가자들과 성원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 함께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국무위원회 성원들은 위대한 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박봉주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조선로동당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우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 과 국가활동의 영원한 지도적지침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으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즈음하여 4월 15일 금수산태양궁전 위원회 위원인 김재룡내각총리를 비 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 김일성주석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 을 찾으시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와 못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시였다. 계시는 영생홀을 찾으시여 가장 경건 을 혁명의 강위력한 향도적력량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숭고한 경의 성원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다.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사회주의강국건 립을 표시하시었다. 국무위원회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 경애하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설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한 오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강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원수님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의 장엄한 자력갱생대진군에서 혁명의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거룩한 영상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계시는 영생홀을 찾으시여 가장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위대한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 갈 불라는 맹세를 다지였다. 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일성주석께서 위대한 공화국 국무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된 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신창양어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4월 16일 신창양어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 훌륭히 꾸린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혁명사적교양실을 잘 꾸리는데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양어장에 와서 귀중한 혁명사적자료들을 다시 보니 한평생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전사들을 위해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생각이 더해진다고, 특히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여러차례나 찾아오시여 양어장을 양어의 본보기단위로, 세계적인 양어기지로 개진현대화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적인 로고를 떠나 오늘의 신창양어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양어장에 아로 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통한 위대성교양을 깊이있게 진행함으로써 양어의 든든한 기초를 마련하시고 밝은 전망을 열어주신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



인민군대가 많은 일을 하였고 하시면서 온 나라가 인민군대의 모범을 본받아 우리 당의 양어정책을 끝까지 관철하여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물고기를 많이 먹이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 써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신창양어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물고기 생산에서 비약적진전을 이룩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더 많은 물고기들을 수도의 금양봉사부문과 군인들에게 보내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신창양어장이 양어의 주체화, 과학화, 현대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계속 기치를 들고나감으로써 우리나라 양어기술발전의 척도를 보여주는 표준양어장, 나라의 양어를 발전시키는 데서 본보기단위, 교육단위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해나갈데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전반적양어사업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점들과 양어부문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본사기자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양어장구내를 거니시며 규모있게 펼쳐진 양어못들이 한쪽의 그림처럼 안겨오는 아름다운 전경을 부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양어장일꾼들로부터 현지지도과업관철정형에 대한 해

설을 들으신 다음 여러 양어못들과 물고기알개우기장 등을 돌아보시면서 양어장의 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양어 과학기술을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는데서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를 찾으시고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4월 16일 조선인민군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전투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부대앞을 지나가다 추격습격기련대의 비행훈련실태를 료해하기 위하여 갑자기 들렀다고 하시면서 항공 및 반항공부문의 전투가 예고하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의의 시각에 불의에 판정하고 군부대의 경

적동원준비를 검열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투직일꾼무를 수행하고있는 추격습격기들을 리륙시켜 비행사들에게 어렵고 복잡한 공중전투작업을 시켜보라고 명령하시였다.

군부대에 전투정보가 올리고 군부대장의 구령이 내려지자 추격습격기들이 천둥소리와 함께 시벨진 불줄기를 뿜으며 대지를 박차고 련속 날아올랐다.

군부대 비행사들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기라도 한듯 원수님앞에서 자기들이 평시에 련마해온 비행술을 뽐내

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리륙과 각이한 공중전투동작들, 착륙 등 모든 비행조작을 능숙하고 세련되게 진행하는 비행사들의 몸에 익은 비행술을 지켜보시며 조건과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그 어떤 비행전투임무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에서 비행사들의 정신육체적 및 기술적준비를 잘 시키고 특히는 비행기들의 원성능을 회복하고 전투력을 한계단 끌어올리

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려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것이 정말로 대견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수도의 반항공방어임무를 믿음직하게 수행하고있는 비행사들을 만나니 마음이 놓인다 고, 이 군부대는 당의 훈련혁명방침과 군사정치과업을 완벽하고도 정확하게 집행하고있는 부대, 자랑할만 한 부대라고 높이 치하시면서 군부대의 전체 비행사들과 기술군무원들, 가족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분계선표달도 철조망도 없는 하늘에서 무거운 육체적 부담을 이겨내며 순결한 량심으로 조국의 평공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우리 비행사들이 있기에 인민들의 행복찬 래일이 지켜지고 사회주의조국은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모든 비행사들이 조국과 인민의 기대를 한시도 잊지 말고 맡겨진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불굴의 매들로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신형전술유도무기사격시험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4월 17일 국방과학원이 진행한 신형전술유도무기사격시험을 참관하시고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신형전술유도무기를 돌아보시면서 국방과학원의 관계 일꾼들로부터 무기체계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 무기체계의 개발완성은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에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국방과학부문에서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서 당이 제시한 핵심연구목표들을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려 4대요소가 구현된 우리 식의 무기체계개발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는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감시소

에 오르시여 신형전술유도무기사격시험계획을 료해하시고 지도하시였다.

각이한 목표에 따르는 여러가지 사격방식으로 진행한 사격시험에서는 특수한 비행유도방식과 위력한 전투부장착으로 하여 우월하게 평가되는 이 전술유도무기의 설계상지표들이 완벽하게 검증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신형전술유도무기의 위력을 보시고 우리 국

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이 나라의 방위력을 높이는 데서 또 한가지 큰일을 해놓았다고 하시면서 전략무기를 개발하던 시기에도 늘 탄복하였지만 이번에 보니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들어내는 무기가 없다고 궁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늘의 이 성과는 당의 국방과학기술증시정책

의 정당성과 자립적국방공업의 위력에 대한 또 하나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하시면서 사격시험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수생산을 정상화하고 국방과학기술을 최첨단수준으로 계속 끌어올리는 데서 나서는 단계적 목표와 전략적목표들을 제시하시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히시였다.

본사기자

태 양 은 영 원 히 빛 난 다

—재중동포들이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7돐을 성대히 경축—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항일혁명발자취가 어려웠던 중국동북지방에서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다채로운 경축행사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7돐경축보고대회가 15일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이 모셔진 길림육문중학교에서 진행되었다.

보고대회에서는 최수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1부의 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우리 민족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공동의 명절인 태양절을 뜻깊게 맞이하는 이 시각 모든 재중동포들은 민족재생의 은인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고 하면서 한평생 전일미답의 험난한 길을 헤치시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시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그는 세상이 열백번 뒤집히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쳐와도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지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말에 창조와 건설의 빛나는 위훈을 창조해나가는 조국인민들의 보복에 발을 맞추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는 애국사업에 특색있게 기여할 굳은 결의를 피력하였다.

보고대회에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위인칭송의 꽃들이 만발한 김일성화경정일화전시장과 우리 민족의 후손만대 번영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문헌들과 도서들이 전시된 사진도서관 전시장을 깊은 감명속에 돌아보았다.

이날 동포예술인들이 출연하는 태양절경축공연이 길림시에 있는 송화극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혼성합창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혼성2중창 《김일성장군님은 우리의 태양》, 독무 《맹세》, 남성독창 《매혹》, 여성군무 《장교춤》, 아동2중창 《원수님 먼길 다녀오셨습니다》, 남성5중창 《우리의 국기》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공연은 절세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천출위인을 민족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신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예술적화폭으로 감명깊게 펼쳐보인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재중동포들이 많이 살고있는 심장시를 비롯한 중국동북의 여러 지방들에서도 13일부터 15일까지 꽃바구니진정식과 결의편지채택모임,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어 동포사회의 경축분위기를 돋구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재중동포들, 중국의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태양절경축행사장들에는 조국과 민족, 조종천신의 강화를 위한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과 그리움, 경모의 정이 뜨겁게 차고넘쳤다.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하는 동포들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민족의 어머니로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를 받들어 조국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성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결의가 충만되어있었다.

사진, 글 박주성



지난 4월 18일, 평양의 봉화예술극장으로는 시내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태양절경축 재중동포가수들의 예술공연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극장으로 온 각계층 인민들이었다. 《이번에 최경호가수랑 왔

해외동포가수들이 평양에서 부른 흥모의 노래

... 노래를 들으며 관람자들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그리움, 조선민족의 자랑스런

호가수의 노래는 관람자들속에서 대접찬을 받았다. 최경호가수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랑가》를 예술적으로 잘 형상하여 관람자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애민의 거룩한 한평생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하였다.

이어 그는 《조선아 다시 안아보자》, 《고향집 탈밭에》, 《장군님 따르는 마음》, 《고백》, 《조국과 나》, 《뿌리가 되자》 등 조국인민들이 즐겨부르는 노래들을 훌륭히 형상하여 무대에 올렸다.

풍부한 성량을 가진 김학준가수는 《위대한 사랑의 길》, 《일심단결닐리리》를 불러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한선녀가수는 맑고 우아한 목소리로 《수령님 사랑속에 우리 행복 꽃피네》, 《영원한 그 미소》, 《수령님 모시고 천년만년 살아가리》, 《사회

주의 락원일세》, 《고향의 봄》을 비롯한 노래들을 예술적으로 잘 형상하였다. 특히 한선녀가수가 부른 노래 《내 마음 언제나 그이곁에》는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이 직접 작사작곡한 이 노래는 지난 시기 4월의 봄 친선에술축전무대에 여러 차례 올랐던 노래이다.

해외에 살아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에 두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려는 재중동포들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진 노래를 들으며 관람자들은 눈물을 적시었다.

원수님 내 마음 언제나 그이곁에

공연무대에는 겨례의 통일념원을 담은 노래 《백두와 한나는내 조국》도 울라 장대를 통일열기로 뽐내 하였다.

공연은 최경호, 한선녀, 김학준가수들이 함께 부르는 종곡 《장백송》으로 막을 내렸다.

공연은 끝났지만 관람자들은 훌륭한 무대를 펼쳐보인 재중동포가수들에 대한 사랑과 정을 담아 화려한 꽃다발과 함께 열렬한 박수로 그들을 축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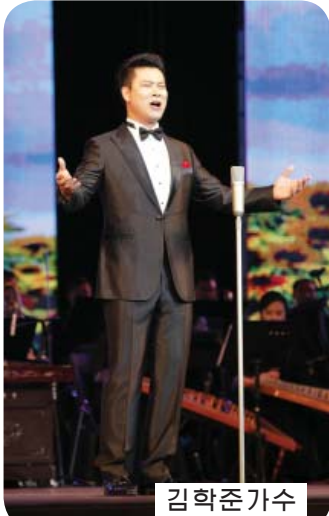
가수들도 이에 화답하여 오래동안 무대를 내리지 않았다. 공연이 끝난

후 최경호가수는 기자에게 《우리들의 노래를 들으며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는 조국인민들을 보니 정말 고맙다. 17년전 처음으로 조국에서 노래를 불렀었는데 지금도 나의 노래를 사랑해주는 그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 노래로써 이 기회에 보답할 마음뿐이다. 나에게 공훈배우칭호를 안겨주고 높은 국가수훈까지 안겨준 조국의 사랑, 나의 노래를 그토록 사랑해주는 조국

인민들의 마음을 언제나 잊지 않을것이다. 앞으로도 조국에 와서 계속 노래를 부르겠다.》고 자기의 소감을 밝혔다.

재중동포가수들의 공연은 19일에도 진행되었다. 공연은 끝났지만 4월의 하늘가에 울려가던 재중동포가수들의 절절한 흥모와 그리움의 노래들은 오래도록 조국인민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있다.

본사기자 함금숙



대요》 《그래서 우린 온 가족이 공연을 보려고 다 왔어요》 공연시간을 기다리며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는 재중동포가수들에 대한 조국인민

출연하였다. 장백의 산발을 넘어 압록강물결을 넘고넘어 꿈에도 달려가는 사랑하는 나의 조국

고 언제나 백두산을 우러르며 사는 재중동포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수 있었다. 이어 재중동포가수들은 독창종목들을 펼쳤다. 그중에서도 공훈배우 최경





금강산 만물상의 기암들

얼마전 우리는 천하제일명산 금강산을 찾았다. 예로부터 명산의 아름다움은 바위와 돌의 기묘함을 이르는 압석미, 골짜기의 우아함을 이르는 계곡미, 천길낙력으로 떨어지는 물줄기의 장쾌함을 이르는 폭포미,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 멀리 바라볼 때의 장엄함을 이르는 전망미, 명소에 깃든 전설의 신비로움을 이르는 전설미 등으로 일러왔다. 금강산은 그 모든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는 명산중의 명산으로 알려졌었다.

금강산의 일만경치를 찾아서

조각미를 드러낸 기묘한 바위들이 천만가지 생김새를 자랑하는듯싶었다. 이쪽을 보면 파도—하고 울부짖을듯 두눈을 부릅뜬 호랑이, 저쪽을 보면 알밭을 쳐든 곰, 용맹스런 사자가 있는가 하던 한가로이 풀을 뜯는 사슴, 발딱 일어난 토끼와 꼬리를 세우며 달아나는 다람쥐의 귀여운 모습도 있었다. 만물상을 지나 천선대에 오르면 신선이 산다는 하늘 나라에 들어선듯싶었다. 사위는 안개속에 묻혀있어 날개를 펴고 구름속을 훨훨 나는것같은 기분이었다. 이어 안개가 가셔지고 해살이 비쳐들자 금강산의 일만경치가 한쪽의 그림처럼 펼쳐졌다. 황홀한 경치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내

려오다가 《망장천》에 이르러 샘물을 달게 마시는데 해설원이 옛날에 한 로인이 나무하러 왔다가 목이 말라 이 샘물을 마시었는데 어느새 주름살과 흰수염이 없어지고 새파란 젊은이가 되었다는 전설을 들려주었다. 까닭인즉 그 샘물이 금강산의 산삼과 특용이 녹아내린 물이었기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전설을 들으며 구미가 동해장수샘물을 한모금씩 더 마시니 정말 온몸에 새 힘이 솟는듯 하였다. 우리는 구룡연구역도 돌아보았다. 신비경의 대문같은 금강문을 지나니 돌안이 활짝 열리면서 옥류동의 전경이 펼쳐졌다. 금강산의 맑은 물은 펼쳐면 비단필, 떨어지면 폭포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 정보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영상회의체계 《락원》이 수많은 기관, 기업소들에 도입되어 큰 은을 내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로 상대방의 영상을 보고 음성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회의의 경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영상회의체계는 수백명, 수천명 참가규모의 회의와 토론을 실시간으로 중단없

은을 내는 영상회의체계 《락원》

로그램, 말단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는 새로운 영상회의체계는 지역적으로 떨어진 산하단위들과의 정기적인 회의소집을 필요로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회의보장용으로 리용할 수 있다. 이 영상회의체계는 수백명, 수천명 참가규모의 회의와 토론을 실시간으로 중단없

사화

《평양재사》 (1)

글 리 빈, 그림 리 성 일

어느 여름날 평안감사는 자기의 친구인 황해감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오는 류두날에 우리 서로 구월산에서 만나 명승약수며 물과 마음을 씻고 삼성사참배를 한 뒤 탐승의 하루를 즐기려보세. ...」 며칠후 황해감사로부터 기꺼이 응해나서는 회답이었다. 맑게 개인 류두날 두 친구는 삼성사가 자리잡고있는 소중산기슭에서 반갑게 만났다. 두 도의 반두들이 움직이다보니 평안도와 황해도

의 량반벼슬아치들이 앉은 다우어 모여들었다. 각처 시팔선비들 또한 흔치 않은 기회를 놓칠새라 서둘러 찾아왔다. 여기에 평양에서부터 감사일행에 붙어 따라온 김선달도 한층 끼었다. 삼성사 참배의례가 엄숙하게 끝난 뒤 사당뒤 사방이 탁 트인 소중산마루 넓은 마당에 모두들 널려앉아 힘자라는것 마려해가지고 온갖가지 술과 안주를 풍성히 펴놓고 권키니작키니 흥에 겨워 명절을 즐기기 시작했다. 바람좋고 경치좋고 술맛좋

은 가위에 선비들이 서로 만난 자리라 상하존비를 막론하고 너도나도 한결같이 즐거움에 잔뜩 떠있었다. 즉흥시들이 쏟아져나오고 춤과 노래가 판을 쳤다. 시들이 서너수 울어지는 사이 어느덧 반쯤 취기가 올라 기분이 좋아진 평안감사가 은근히 유감을 표시했다. 「단군성왕어전에 있을 경치 다 있고 있을 선비 다 있으며 또한 있을 음식 다 있는데 유독 웃음만 없구려.」 「존공이 옳게 보았소. 웃음이 있고서야 명산, 명절이 있는 법이지. 이제 웃음필천들을 털어내봅시다그러. 이 많은 인물들 가운데 뉘들 없을까라.」 그의 말을 일문 뒤반으며 자리에서 흔연히 일어난 황해감사가 좌중을 둘러보며 평안감사가 여자모사한 의견을 냈는데 존비귀천에 관계없이 가지고있는 웃음거리들을 아끼지 말고 모두 털어놓으라고 하였다. 모인 사람들은 입맛부터 다시며 쾌히 응해나섰다. 술이란 물건은 별난 조화

를 다 부리게 하는 참 이상한것이다. 그러럼 코를 세우고 량반의 체면을 훌쩍 벗겨버리는가 하면 아예사람들에게는 좀처럼 생기기 힘든 담도 척척 만들어주어 량반님네들이 어려운줄을 모르게도 한다. 하여 벼슬아치들은 그들대로, 중인관속류는 그들대로, 시팔선비들은 역시 그들대로 승벽이 나서 형형색색의 우스개소리를 토해놓았다. 제노라고 풀렁대던 량반이 《물고기 어》자와 《로나라로》자를 헛갈려 농군들 앞에서 망신당한 이야기, 남에게 감쪽 속이 장사밀천을 흘랑 털리운 이야기, 아무나 막 꺾을수 있는 버들가지인 줄 알고 손을 뻗었다가 본사방에게 걸려들어 혼쭐이 빠진 이야기... 별의별 이야기들이 쏟아져나와 연송사람들을 웃기었다. 모두들 좋아라 떠들썩 흥이 났지만 평안감사만은 낯색이 좋지 않아가지고 꾀없이 앉았었다. 그의 눈치를 살펴본 황해감사가 물었다. 《어제 존공께서는 심기가 불편해하시오? 누구보다 기



《뒤 달리 생각마시오. 내 룡담으로 해본 소리로.》 《룡담속에 진담이 있다지 않소!》 《하긴 그래... 그건 그렇고 존공 생각엔 어떻소? 하느 소리들마다 천천히 난 막

공하였다. 연구소에서는 영상회의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에겐 기술실무적문제들을 알려주는 한편 개발자들을 현지로 파견하여 해당 단위의 실정에 맞게 도입해주고있다. 그 효과성이 검증된 새로운 영상회의체계 《락원》은 현재 전국적범위에서 광범히 도입되고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 최우수태권도선수 (5)

9. 황해북도태권도선수단 선수 리성훈

리성훈선수는 2016년, 2017년에 이어 세번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 최우수태권도선수로 선정되었다. 황강한 투지의 소유자인 그는 제8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하여 4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여 관람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해 그는 제9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78kg급 남자개인맞서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대회기간 그는 남자단체

맞서기경기에서 자기의 뛰어난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치밀하게 진행된 경기에서 그는 전술적의도를 잘 살리면서 불의적인 공격으로 주도권을 틀어쥐고 경기를 침착하게 운영하여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그는 높은 육체기술 및 전술적우세로 상대방선수들을 물리치고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더 높은 기술과 육체적준비를 갖춘 세계적인 태

권도강자가 될 열의를 안고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10.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 선수 림위석

림위석선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 최우수태권도선수로 선정되었다. 여러 국내, 국제경기들에 참가하여 금메달을 포함하여 많은 메달을 쟁취한 그는 태권도강자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있다. 반응속도가 빠르고 맵시있는 경기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주곤 하는 그는 특기기술을 완성하기 위하여 훈련에서 땀을 아끼지 않았다. 하여 지난 기간 그는 전승검전국제태권도강자경기대회 71kg급경기와 몸무게급에 관계없는 경기에 참가하여 2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완강한 투지와 인내력의 소유자로서 곱힐줄 모르는 기질을 가지고 경기를 운영

해나가는 그는 제9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도 높은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준 바 있다. 대회기간 그는 단체틀경기에서 공화국이 우승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제18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후 공훈체육인이 된 그는 제19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인민체육인의 영예를 지니었다. 오늘날 그는 더 많은 금메달로 태권도모국의 영예를 빛내어갈 일념으로 훈련의 날과 달을 이어가고있다. 본사기자 현은경



비파형 단검

비파형단검은 고조선시기에 만들어진것으로서 조선반도를 비롯하여 고대조선사람들이 퍼져살던 모든 지역에 분포되어있었다. 그 모양이 마치도 옛날약기인 비파처럼 생겼다고 하여 비파형단검이라고 부른다. 비파형단검의 발원지, 중심지는 평양이다. 비파형단검은 그 구조와 재질, 검몸과 검자루의 형태, 검몸에 새겨진 무늬 등에서 자기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있다. 가장 특징적인것이 검몸의 평면생김새이다. 검몸은 앞끝이 뾰족하고 량옆날이 우아한 곡선을 이루고있으며 검몸의 중심 혹은 그 윗부분에 예리한 돌기부가 있는 등 조형미가 세련되어 있다. 비파형단검은 구조상으로도 독특하다. 비파형단검은

검몸, 검자루, 검자루맞추개를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 조립한 조립식이었다. 이것은 고대조선사람들의 청동기제작 및 가공기술이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식적 요소에 있어서도 비파형단검은 매우 세련되어있다. 비파형단검의 검자루와 검자루맞추개 등에는 다양한 양식과 장식들이 부각되어있다. 하기에 세상 사람들은 비파형단검을 가리켜 단순한 무기가 아



건강에 제일 좋은 시간

—제일 좋은 목욕시간 아침에 일어나 목욕을 할 때 물의 온도가 적당하지 못하면 감기에 쉽게 걸릴 수 있다. 집집마다 목욕을 하면 몸이 거뜨해질 수 있지만 인차 피로가 출수 있다. 제일 좋은 때는 저녁이다. 잠자기 전에 더운물로 목욕을 하면 온몸의 근육과 관절들이 풀리고 근육이 빨리 지며 잠도 잘 잡수 있다. —제일 좋은 몸단련시간 아침은 몸단련에 가장 좋은 때로 알려져있지만 해질 무렵에 몸을 단련하는것이 더 좋다. 해질무렵에는 미각, 시각, 청각 등의 감각이 최고로 예민해지고 전신조절능력이 제일 강해지며 특히 심장박동과 혈압이 비교적

낮아져 몸단련에 적합하다. —과일을 먹기에 제일 좋은 시간 식사하기 1시간전에 과일을 먹는것이 좋다. 과일은 생것이므로 그것을 먹은 후 더운 음식을 먹으면 체내에서 백혈구증가를 비롯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인체면역계통을 보호해주며 질병과 암에방역력을 높여줄수 있다. —방안공기갈이에 제일 좋은 시간 매일 오전 9~11시, 오후 2~4시 사이에 공기갈이를 하는것이 제일 좋다. 이때에는 기온이 높고 역류현상도 없으며 대기미질의 유해기체는 점차 흩날린다. 본사기자

유모아

《이 주먹이 누구의 주먹이오이까》

리항복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기지와 익살로 소문이 났다. 리항복이 아이때 자기 집 감나무가지가 이웃집뜰안에 드리워져 그 집주인이 나무에 달린 감을 따먹는데 대하여 항의하였다. 《그렇다면 이 주먹이 내 주먹이오이까, 그 녀의 주먹이오이까?》

《너희 집 감이라니? 이 녀석, 우리 집 뜰안에 있는 감이야 우리것이 어떻게 너희가?》 리항복이 아이때 자기 집 감나무가지가 이웃집뜰안에 드리워져 그 집주인이 나무에 달린 감을 따먹는데 대하여 항의하였다. 《그렇다면 이 주먹이 내 주먹이오이까, 그 녀의 주먹이오이까?》